

(가)의 ㉠‘전문직 직업윤리’를 토대로 (나)에서 서술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를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700 ~ 800자 / 240점)

가

개인 윤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에 비해 사회 윤리는 사회적 구조의 모순 또는 제도의 불합리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룬다. (중략)

직업윤리는 보편 직업윤리와 ㉠‘전문직 직업윤리’로 구분된다. 보편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인이 따라야 하는 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의 예로는 직업적 양심, 공동체 의식,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습득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러한 보편 직업윤리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전문직에 요구되는 윤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여, 역할에 걸맞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며, 이러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전문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임을 자각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 수입원이나 경력을 채울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및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와 관련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략)

한 전문가가 전문직 직업윤리를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구조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개인의 그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근세(近世)에 이몽수(李蒙叟)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뜻이 뛰어났으나 공명(功名)을 이루지 못하여, 사람을 살리려 하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진(麻疹, 홍역)에 관한 책을 홀로 탐구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를 살렸으니, 나도 그 중의 한 아이였다. (중략)

슬프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없는 지 오래되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마진이 더욱 심하니 어찌서인가. 의원이 의원을 업으로 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이다. 마진은 대개 수십 년 만에 한 번 발생하니, 마진의 치료를 업으로 해서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업으로 삼으면 기대할 만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 하지 아니하며, 환자를 만나서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부끄러운 일인데, 더구나 억측으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아, 잔인한 일이다.

마진에 대한 처방은 등잔불이나 샷갓과 같아서, 깜깜한 밤이나 비가 올 때에는 등잔불이나 샷갓을 급히 불러 찾다가, 아침이 되거나 비가 개면 까맣게 잊어버리니 이것은 우리 사람의 뜻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다. 가령 사람이 내년에 전란(戰亂)이 있을 것을 안다면, 가정에서는 무기를 수선하고, 읍에서는 성을 완벽하게 쌓을 것이니, 전란이 어찌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겠는가. 사람을 더 무섭게 살상하는 어떤 마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태연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책 ‘마과회통(癡科會通)’을 만든 것이 몽수(蒙叟)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다

의학과 2학년인 A군은 최근 강의를 들으며 기초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인체를 탐구하여 새로운 의학 지식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질병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었다. A군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초 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연구비 지원도 타 분야에 비해 부족하고, 기초의학이 담당하는 강의 수도 축소되어, 일자리가 갈수록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또 기초 의학을 전공한 의사의 수입이 임상 의학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A군은 그제야 왜 매년 의대 졸업자 중 극소수만이 기초 의학 분야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의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며, 그 결과물을 실제 임상 상황에 적용하는 학문으로서 크게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으로 구분된다. 기초 의학은 양질의 임상진료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첨단 의료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므로, 기초 의학 전공 의사들을 양성하는 것은 선진 의료국가로 가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초 의학은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해부학 등 해당 전공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까지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